

2018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제1차

(速記錄)

- 주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일시 : 2018. 6. 5.(화) 14:02 ~ 15:27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6층 회의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센터프라자 808호

Tel) 02-537-0889 Fax) 02-738-0123



2018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제1차

- ◆ 일시 : 2018. 6. 5.(화) 14:02 ~ 15:27
-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6층 회의실
- ◆ 참석자 (4명)
 - 위원장 : 000
 - 위 원 : 000, 000, 000
 - 배석자 : 000 과장, 000 팀장, 000 주무관
- ◆ 심의안건 (총 6건)
 - 2018년 표석 정비계획 보고
 - 표석 주변녹화 등 정비에 따른 디자인 변경 자문
 - 별명창·읍청루 표석 신설 자문
 -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터 표석 신설 심의
 - 대한적십자병원 터 표석 신설 심의
 - 오상규 선생 집터 표석 신설 심의

(개회)

○ 000 위원장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제1차네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회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이 모여서 표석분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안건에 있는 것처럼 보고안건이 하나 있고요. 자문안건이 두 건, 심의 안건이 3건이 있어서 회의자료 순서에 따라서 바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표석 사례조사 용역 및 추진상황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죠.

○ 000 팀장

지난번 위원회 때 저희가 먼저 미리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05/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표석에 대한 문안이나 위치에 따라서 그동안 건건이 조사를 해서 오류 사항이 있으면 정비해왔던 것을 현재 총 316개 중에서 174건 정도가 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사료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이미 사료조사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위원하신 000 위원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맡아주고 계시고요. 이번 조사 대상은 종로구, 중구 이 서울 중심부에 있는 것 그리고 용산구까지 해서 그리고 1985년부터 표석 설치가 시작됐는데 초창기에 설치된 표석 중심으로 해서 총 100건을 선정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에 그 100건에 대한 제목이 표시되어 있고요. 현재 연구 초기단계로서 000 위원님께서 자문도 해 주셨고 조금 더 연구가 진행이 되면 중간 단계에서 한번 자문요청을 드릴 거고요. 최종적으로 정비대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회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럼 바로 자문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표석의 주변 녹화 등 정비에 따른 디자인 변경자문에 대해서 중구에서 올라왔는데 총무공 이순신 생가 터 외 7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별영창·읍청루 용산 산줄기 끝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표석 신설 자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별영창·읍청루 일대를 시민이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표석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문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먼저 협의를 하도록 하죠.

○ 000 팀장

중구에서 요청한 건은 중구청 관계자가 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 관계자 입장)

○ 중구청 관계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의 표석이 75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5개소 중에 천주교 순례길 주변으로 해서 8개소를 먼저 정비하는 것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8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05/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8개소 주요 표석은 이재명 의사 의거 터, 이회영·이시영 6형제 집 터, 양향청 터, 이황 집 터, 서부학당 터, 충무공 이순신 생가 터, 보구여관 터 총 이렇게 8개소를 대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표석 주변의 정비된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사례조사를 한 부분인데 깔끔하게 그냥 잔디밭 위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고 녹지대 쪽에 식물들하고 같이 설치된 공간 그리고 포장공간에 아예 이렇게 주변에 철판으로 마감해서 표석과 철판을 매치시켜서 정비한 공간들, 그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사례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 중구청 관내가 사람 통행이 많고 보도가 그렇게 넓지 않고 통행이 많은 구간들이 많아서 녹지정비 쪽보다는 내구성 강판이라고 해서 녹이 슨 느낌의 철판재질을 활용해서 철판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충무공 이순신 생가 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표석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에 철판으로 주변 형태를 정리하고 표석이 돌의 글자가 음각으로 새겨지다 보니까 시인성이 떨어져서 이 앞쪽에 철판 부식을 해서 거기에 색상을 입히고 글자를 넣어서 한 번 더 이순신 생가 터라는 지역적인 특징을 상징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000 위원

이 모양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 중구청 관계자

예. 이렇게 하려고 (안)을 지금 잡은 상태입니다. 상세도면을 보시면 표석 사이즈는 1m 정도 되고요. 양쪽으로 1m가량 더 넓혀서 철판을 마감을 해서 이 표석 자체로 사람들이 주변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것들을 세우는 게 많아서 그것을 차단하는 기능적인 특징도 있고 그래서 철판으로 20cm 정도 올라오게 그래서 표석 쪽으로는 이런 행상이나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면서 철판으로 같이 마감을 하고 전면부에는 이순신 생가 터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이회영, 이시영 6형제 집터입니다. 이것은 명동 쪽으로 해서 공개 공지 부분에 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 동상하고 표석이 녹지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6형제에 대한 표석에는 그냥 내용들만 있어서 6형제분들의 업적을 시민들이 보고 학습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6형제분들의 생활이나 그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게



6형제 안내판을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상세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 녹지대 플랜터 앞쪽에 철제 안내판으로 해서 6형제분들의 생활기록들을 저희가, 이 문헌 자료는 우당 기념관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 연대, 하셨던 것들을 정리하고 그분들 사진을 인쇄해서 사진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의사 의거 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표석 자체가 보도 부분 중간 쪽의 나무 밑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자리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비둘기들이 여기서 똥을 많이 싸서 표석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 보도 중간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쪽에서 걸어가는 분들은 표석 뒤쪽을 보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할 때 아예 안쪽 벽 쪽으로 위치를 이동시키고 뒤에 벽돌 벽체건물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철판으로 부착해서 이재명 의사 사진하고 이재명 의사의 업적을 연대기로 써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 부분을 보시면 표석 위치를 이설하게 되어 있고 1m×2.5m 철판을 설치해서 사진 인쇄한 부분과 이재명 의사의 업적 부분을 음각부식 처리해서 새겨 넣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이항 집 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도 저희가 찍을 때 최대한 없을 때 찍었는데 자전거나 오토바이들이 표석에 기대서 세워놓는 경우도 많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표석 주변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표석을 위치나 이런 것들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철판으로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통일되게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형태 자체는 사이즈는 2.2m×1.2m 정도로 표석 주변을 철판으로 보호를 하고 전면부에는 장소 명칭을 쓸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양향청 터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도로변 쪽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이 뒤쪽으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서 있으면 시인성이 떨어져서 녹지대 쪽으로 위치를 옮기고 디자인은 앞쪽과 통일된 형태로 같이 철판으로 하고 공간을 상징할 수 있도록 명칭을 써서 계획했습니다.

다음 서부학당 터 같은 경우는 건물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것은 화강석 타입이 아니고 철제안내판으로 정비가 된 공간인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글자도 작고 시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게 되는 공간이라서 앞쪽에 철판을 막아서 녹지대 위에, 맥문동 등을 식재를 해서 푸른 녹지 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녹지로 정비한 계획입니다.

시위병영 터 같은 경우는 위치는 안쪽 건물 쪽으로 붙어 있어서 위치 이동은 따로 없고 디자인은 앞의 이항 집 터 등과 통일되게 같은 디자인



형태로 계획했습니다. 상세도도 사이즈는 규격을 통일해서 같은 사이즈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보구여관 터입니다. 여기도 금속제 안내판으로 한 번 정비가 된 공간이고요. 뒤에 석축옹벽이 높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통행이 많지는 않은 공간이라서 저희가 철제 플랜터 형태로 막아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부에 녹지대를 조성해서 깔끔하게 녹지대 위에 표석이 위치할 수 있게 해서 녹지대가 표석 자체를 1차적으로 보호하고 경관적으로도 좀 보완을 하고, 여기는 뒤쪽에 석축 옹벽이 있어서 덩굴식물을 같이 심는 것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세도면입니다. 철판으로 녹지대에 흙을 담아서 식재를 하고 뒤쪽에 덩굴식물 식재를 하고 기존 표석은 위치를 존치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 나아가도록 하죠.

간략하게 중구에 있는 표석의 주변녹화 정비(안)을 들어봤는데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전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 000 위원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릴까요? 제가 몇 달 전인가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자문 관련된 의견을 요구해 와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그때 말미에 의견을 어쨌거나 표석 자체를 손을 대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옳지 않다. 왜냐면 설립 주체가 표석 자체는 서울시에서 세운 건데 그것을 가지고 구청 단위에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시설한다는 것 자체는 그런 시도 자체가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일단 분명히 보고요. 그 다음에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예를 들어 일반적인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현상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간에 문화재 표석분과에 의견을 올려서 거기에서 허가를 득한다거나 그런 식의 전제조건 이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안전을 올린 것 중에서 보면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표석을 몇 년 전부터 표석 디자인 개선작업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하시는 문구 정리들을 진행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쨌건 대상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개가 보이는 대로, 그게 구형이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년 내로 또는 한두 해 이내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변경된다 그러면 설령 비싸게 돈을 들여서 그 앞에 철판 구조 같은 것으로 덧댔다 치면 서울시에서는 중간 그것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것만 달랑 들어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런 식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주체가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자인 전체를 변경해서 여기에 부가적으로 뭔가 개선해보자고 하면 그것은 작업이 가능한데 이것은 본체 자체에, 표석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완결된 디자인이잖아요. 그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거쳐서 그런 디자인을 해서 길거리 어디에 세우더라도 통행에 방해가 덜 된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웠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세우니까 절차상으로 주체가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여기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철판을 덧대는 경우에는 지금 대개 보면 설치되어 있는 위치 같은 경우에는 통행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지금 있는 상태로만 해도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민원이 곧잘 올라오는 것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더 덧댄다는 것은 그자체로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주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지금 우리가 표석 정리할 때도 분명히 표석의 설치라든지 등등은 분명히 시 소관이잖아요. 시에서 하고 그 다음 이 표석분과 자체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 자체는 구청에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관리라는 것은 주변을 깨끗이 관리하는 거죠. 그냥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처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표석을 신규 신청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을 통해서 여기에 접수를 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단위에서 관리하는 의미이지 지금 여기 정비(안)이 올라온 것처럼 거기에 부가적인 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올려 있는 (안) 자체는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뭐냐면 구청 단위에서 설치한 표석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상관없이 똑같은 디자인인데 주체가 종로구에서 했다거나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설치한 것은 구 자체에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의 예산을 공연하게 투입하기보다는 차제에 오히려 서울시에서 세우기 어려운 사안들, 구 단위에서 세우면 적절한 그런 식의 표지를 할 만한 대상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강구하셔서 중구청에서 직접 표석을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05/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설치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오히려 사업비를 전환하시거나 아니면 이 중에서 그나마도 수공할 수 있는 게 이회영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표석 자체는 손을 대지 말고 두시고 그 인근 자체가 작은 공원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가적으로 뒤에 조형물이나 안내판을 표석과 상관없이 설치하는 방식은 분명히 탐방객들한테 도움이 되는 처사니까 그런 장소에 오히려 집중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더, 하여튼 이쪽에 예산이 짜여 있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표석하고 직접 연계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봐요.

○ 000 위원장

예. 먼저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다른 선생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 000 위원

서울시가 정말 이것을 일괄적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나요?

○ 000 역사문화재과장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는 바꾸지는 못하죠. 이게 파손이 됐다든가 아니면 위치가 문제가 있다든가 신설할 때 새로운 디자인을 검토하면서 개별적으로 하지 지금 용역 하는 것도 문구나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다 조사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표석 변경 수요가 되면 그때 그 자료를 활용해서 표석을 만들겠다는 거지 일괄적으로 멀쩡한 표석을 지금 저희가 뜯어내서 새 것으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 000 위원장

지금 중구청에서 예산까지 책정을 해서 사업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어느 정도나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중구청 관계자

지금 용역 끝났고요. 실제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할 것 같아서 이번만 통과되면 바로 저희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 000 위원장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결론이 날 경우는 계획했던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 중구청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그건 사전에 미리 얘기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000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의견은 서울시 자체에서 그동안에 표석 설치했던 기준이라든가 통일성 같은 게 있을 텐데 거기에서 중구만 그것도 지금 75개 중에 일부만 먼저 착수해본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은 좀 받는데요.

○ 000 위원

이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 000 위원장

없었죠.

○ 000 위원

구청 단위로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 000 팀장

예.

○ 000 역사문화재과장

돈이 드니까요. 굳이 구청에서 예산을 활용해서까지 표석 정비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중구 입장에서는 저희가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비 갖고 하는 것이니까 구청장님이 의지가 있으니까 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 같으면 그 돈이 있으면 다른 것에 쓰시겠죠.

○ 000 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이 재정운용을 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구조에 다른 유적이거나 다른 표석에 해당되는 경우를 신설한다면 중구 사업으로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05/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가능한 것이 있는 것처럼 가능할지 몰라도 이미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표석들에 대해서 임의로 고치고 임의로 시설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순서가 많이 바뀐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000 선생님 의견 말씀하시죠.

○ 000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중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사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 000 위원장

그렇죠.

○ 000 위원

지금 이순신 생가 터 경우를 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인도가 좀 좁아지는 것 아닐까요?

○ 중구청 관계자

아니요. 그게 좀 넓은 도로라서 이쪽에 극장이 크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는 그 사진만의 통로가 다가 아니라 옆으로 더 보행할 수 있는 폭이 좀 있어요.

○ 중구청 관계자

그러니까 지금 사진 보시면 표석 양쪽으로 전신주하고 가로등주가 서 있어서 사실은 여기가 어차피 전신주 때문에 통행에 딱 걸리는 위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안으로 잡았던 게 표석을 중심으로 표석 옆에 중구 쪽에 오토바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쌓아놓고 그런 게 많아서 저희는 조금 옆으로 1m씩 보호 차원에서 표석 주변이라도 그런 것을 못 세우게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공간을 차지해서 철판으로 약간 한 단 올려서 감싸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 000 위원장

서울시 입장에서도 보면 저렇게 구청 단위에서 올라오는 정비계획 같은 것을 받았을 때 다른 구에서 설치한 것이라든가 다른 구에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조정 문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이 표석이 충무공 이순신 생가 터라든가 그 전에 볼 것 같으면 워낙 길을 좁은데다가 저렇게 표석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무슨 노점상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기본 시설에 이용객들이 막 쓰다 보니까 덮혀 있고 오히려 표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덮어 쓰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면적이 좁고 따로 지금 이회영 선생 명동 쪽 입구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활용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인도에 저런 것이 또 넓게 차지한다면 지금 서울시 전체 도로가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상당히 설치 되는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보다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좀 받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단독적으로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로 되고 서울시에서 어떤 기본 방침도 여기서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자문을 주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000 위원

이재명 의사 의거 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옮기니까 좀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 000 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위치상에서 자리를 약간 안쪽으로 실용성 있게 옮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협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체 지금 있는 표석 자체에 변화를 준다면 이런 것들은 전체 문제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000 위원

이 안건은 아닌데요. 약간 유사한 사례가 같이 있어서 안 그래도 이것도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 제가 들고 왔는데 종로 보신각네거리에 보면 전옥서 터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전옥서 터라고 시에서 세운 기본 표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런 식의 사안들이 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뭐냐면 서울시에서 표석을 세웠는데 다른 단체 또는 구청 단위일 수도 있고 그것을 이중으로 또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천주교 신앙 증거 터라는 개념으로 해서 경기 감영 터에도 있고 등등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웠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옆에 이웃하는 자리에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놨느냐면 분명히 이것을 세운 주체가 여기에 안내판을 세웠으면 자기들이 세운 것 뒤에 세우는 게 기본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내판을 서울시에 세운 것을 바로 뒤에 달랑 세워놓은 거예요. 이것은 표석 자체가 완결이거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세운 것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면 보조적으로 도움은 되나 이것은 기본상식의 문제잖아요. 이렇게 세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세운 것 뒤에 같이 설명 보조판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난데없이 서울시에서 세운 것 뒤에 해놓으면 그러면 구태여 앞에 표석을 세우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철거하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거나 표석은 그 표석 자체로 끝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갖다가 본인이 찾아본다거나 보조적인 설명구조로 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의견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세운 표석 자체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세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권한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조적으로 설명을 더할 사항이 꼭 있다면 앞으로 이회영 형제라든지 이재명 의사 같은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 나름대로 괜찮은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 거리를 두면서 그 뒤에 별도로 설명판이니까 문화재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한다거나 이런 식의 사안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런 식대로 처리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건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는 나머지 것은 시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회영 형제 그런 식의 그 공간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표석을 연결하지 마시고요. 표석은 있는 그대로 두시고 왜냐면 그것은 비둘기가 앉고 하는 것은 저 뒤에 간다고 해도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특별한 사안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저런 식으로 뒤쪽에 명동성당 쪽에서 양해가 된다면 이재명 의사의 의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깊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로 공간을 해 주면 그것은 설치가 충분히 가능한 식의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오히려 짜냈다고 그러면 지금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사안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같고 그 비용을 갖다가 오히려 저런 식으로 전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 포함은 안 됐지만 인물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작은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따로 한두 개 정도를 더 찾아서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05/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소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000 팀장

자문 주신 것을 의견 참조해서 조율해서 해보겠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전옥서 터 세운 것은 세운 주체를 확인하셔서 이것은 분명히 자기들 자리로 옮기라고 하든지 이것은 조치를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기들 뒤에 세워야지 여기 시 뒤의 것에 이렇게 세우면 이것은 마치 사람들의 보기에 따라 이것은 시에서 설명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앞에 표석을 세웠는데 왜 또 설명을 이중으로 하는지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것은 진짜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거죠.

○ 000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전옥서 터나 서소문 밖 형장이나 조선 500년 동안 엄청난 유명한 분들이 다 관계되거든요. 세우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끝이 없어요.

○ 000 위원장

우연치 않게 근래에 봤는데 전옥서 터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바로 앞의 우포도청 터 그쪽에도 원래 표석은 세종로 쪽 가까이 있었던 표석을 다시 광화문우체국 쪽으로 옮기면서 위치를 해놨는데 그 뒤에 보니까 저렇게 똑같은 크기로 붙여놓은 것을 우연히 봤어요. 여기 보니까 천주교 측에서 천주교 성지 순례길로 해서 이것을 다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전옥서 터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설치한 표석이 무의미하게 어차피 큰 안내판에 거기에 투옥됐던 순교자 명단까지 쪽 나열해서 다 쓰여 있어서 표석 설치의 기본방향하교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끼고 과연 이런 것들이 표석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서울시 도로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봐서 저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름대로의 단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하나둘씩 살을 붙이다 보면 서울시 길거리가 남아날 게 없을 것 같아요. 다 인도를 점령해버릴 것이지. 그래서 이런 설치 문제가 있을 때도 지금 각 문학 단체에서 문인들 그런 것 하는 게 있고 지금 천주교 순례길 이걸 하는 것들이 나타나 보이고 각 구청에서 구청별로 나타난 게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 기능이 없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큰 문제는 남산 밑에 총독부 관련된 공간들을 만든 것부터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면을 과연 우리 표석설치위원회에서 과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권한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실무 선상에서 중구청하고 역사문화재과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우리는 자문이니까 여기서 이런 의견 정도를 제시했다는 것 정도로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000 역사문화재과장

지금은 구청장들의 역사에 대한 의식이 좋으셔서 이렇게 표석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신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시에서 표석 설치해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민원 많다고 구청에서는 오히려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훨씬 많이 했거든요. 주민들 보행이 차단된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이런 것들이 시청하고 중구청하고 중복되는 형태로 나간다고 그러면 예산 문제도 중복되고 해서 오히려 더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로 하죠.

(중구청 관계자 퇴장)

○ 000 위원장

다음 자문 별영창·읍청루 터 표석 신설 자문인데요.

○ 담당 주무관

별영창·읍청루 터 표석 신설하는 건에 대한 자문인데요. 아시겠지만 용산구에 있었던 유산입니다. 별영창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설치되었던 훈련도감에 소속되었던 군사시설이었고 읍청루는 그 별영창 옆에 붙어있던 누각의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 1934년에 한강변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주변의 땅이 개발이 되면서 유산 자체는 철거가 되었고 현재 가보면 주유소라든지 사무빌딩 그리고 일반주택들이 점유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5월 중순에 현장조사를 위원님 한 분하고 갔는데 그때 나왔던 의견이 현재는 사라졌고 복원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 터를



기리기 위해서 표석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신설
자문을 올렸습니다.

○ 000 역사문화재과장

여기는 표석 하나만 있죠? 담담정

○ 담당 주무관

담담정 이걸 다른 성격의 것이고 이것은...

○ 000 위원

담담정 표석이 언덕 위에 하나 있고요. 이쪽 주유소 터 있는 오른쪽에 보면
독서당 터 표석도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독서당 같은 경우에는
위치 논란은 약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자료를 보면 담담정하고 백 보인가
이백 보 정도 묘사되어 있는 자료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정확하게 원 위치가 어디인지는 이번 기회에 짚어볼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그 네 가지가 거의 같은 권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담담정은 언덕 위이고
그 밑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강에서 기준이고 지금은 도로가 위로 지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도로 라인에 옛날 읍청루하고 다 그 지표면이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강에서 보면 절벽 위에 보이는데
지금은 도로가 중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읍청루하고 별영창
하고... 하여튼 거기는 표석이 세워지게 되면 네 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별영창·읍청루와 별개로 세운다고 치면.

○ 000 위원장

현재 있는 표석은 뭐뭐가 있죠?

○ 000 위원

그러니까 언덕 위에는 담담정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승만 있을 때 마포장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언덕 위의 개념이고 아래쪽에는 독서당 터가...

○ 000 위원장

용호독서당 표석이 거기 있습니까?



○ 000 위원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9페이지 하단에 보면 168번지 있죠? 붉게 붉은 동그라미 해놓은 것에 거의 오른쪽 끝단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표석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시 확인하고 왔거든요.

○ 000 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강변도로가 다 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설치 가능한 지역이 거기이기 때문에 표석을 박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 000 위원

독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확한 원위치가 어디인지는 다시 한 번 문헌을 뒤져서 정확하게 지금 말하면 별영창 구역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새로 판단해 봐야 할 여지가 있고요. 그런 식의 판단 없이 어쨌거나 그 전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위의 담당정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지형상으로 언덕 위니까 거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읍청루하고 별영창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자료가 분명히 남아 있어서 그 위치가 이 자리라고 확정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다만 그게 이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34년에 일제가 강변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절벽을 깎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읍청루 자리는 허공에 떠버린 거죠. 구태여 정확한 위치에 세운다고 그러면 강북도로의 끝단 정도에 세워야 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별영창 같은 경우에도 구역상, 지반상으로는 거기 주유소 일대가 확실히 맞으나 사진의 별영창 건물로 따지면 도로로 당겨야 하지만 어쨌거나 그것까지는 너무 확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깐요. 지금 강북도로에 도로 경계면 정도에 적절한 위치에 세우면 그 위치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 상태에서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탐방 갔을 때는 그게 복원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려간 시기인데 그것은 도로 때문에 완전히 깎여나갔기 때문에 원래 터에 세운다거나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고요. 다만 그 위에 있고 그 자리라는 것은 확실하니까.

○ 000 위원장

그러면 먼저 자문에 해당되는지 내용이기 때문에 표석 설치하는 문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설치한다면 어떤 형태가 가능한가,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표석 설치하는 방향 자체는 큰 반대가 없으시면 표석 설치한다는 원칙은 그럼 동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현재 읍청루가 됐든 별영창이 됐든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동 시설 내에 있는 누각하고 창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용호독서당 같은 경우는 주로 조선 초기에 해당되는 문제고 나중에 동호독서당으로 실질적으로는 다 옮겨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호독서당은 옛날 폐사지에 잠깐 설치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위치추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지형의 연계성 같은 것을 보면 읍청루 이 쪽 지역으로 연계시켜서, 왜냐면 건물 짓기가 마땅한 데가, 여기가 어떻게 보면 깎아지는 절벽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식으로 자문에 응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기 시청 안에도 보면 육영공원 터, 독일영사관부터 해서 나란히 설치해놓은 모습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설치된다면 한 장소에 나란히 같이 설치하는 방법으로써 자문에 응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하나 얘기해볼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강변도로가 크게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유소가 됐건 그 인근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근처를 찾아서 설치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내용은 그럼 이 설치하는 내용에 원칙적으로 자문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 문제는 다음에,

○ 000 팀장

더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럼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 지도에는 읍청루하고 별영창하고 같은 범위 내라도 이렇게 바로 옆으로 따로 표시가 되어 있군요.

○ 000 위원

6페이지에 나온 그 사진이 가장 일반적이거나 대표적인 사진이겠는데요. 거기 보면 이쪽에 축대처럼 쌓은 것 위가 별영창이고 그 왼쪽 언덕 위에 있는 게 읍청루입니다.



○ 000 위원

굉장히 근사했네요. 근사한 건물이었네요.

○ 000 위원장

예. 이것은 사진이 잘 남아 있어서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산강의 풍류를 즐기던... 대개 위치를 보면 이 지역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용산산맥 줄기에서 한강으로 떨어지는 끝의 절벽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그게 현재 한강대교 쪽에서 바라보면서 그쪽 언덕에 설치된 것이니까 원효로 쪽에서 이쪽 바라보면서 그쪽에 한 거니까, 마포 쪽이 아니고 용산 그쪽에서... 그럼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10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의 정자 같은 것들은 일제 때 나오는 모습인데 본 모습은 아니더라도 지형상으로 봐서 이런 곳에 누각 같은 것을 둘 수가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 000 위원

이것은 그냥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봅니다. 일제강점기 넘어선 이후의 사진은 그러니까 시기가 예를 들어서 1910년대 이후에 찍었다는 게 확인은 안 되는데요. 앞쪽에 보면 도로 공사하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같은 구역에 걸리는 것으로 봐서 아마 그때 사라진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없어진 직후의 항공사진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건물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그때 철거되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 000 위원장

심의안건이 3건이 있는데요. 오상규 선생 집터 표석 신설 심의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죠.

○ 000 주무관

이번에 신설 심의가 총 3건이 들어왔는데요. 오상규 선생 집터하고 경성 여자의학전문학교 터, 대한적십자병원 이렇게 세 건입니다. 위치는 모두 다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드린 관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상규 선생 집터는 괴정 오상규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집터는 오상규 선생이 1905년부터 1910년까지 거주했던 거주지입니다. 오상규



선생은 대한제국 시기에 애국계몽운동을 하였고 또 한북흥학회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한북흥학회는 국권회복과 민권신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서 실력양성과 단합을 과제로 내세웠던 단체이고요. 또 인재양성을 위해서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했던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1908년 서우학회와 통합이 돼서 서북학회로 발전되면서 한북흥학회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종로구 서린동 108번지라고 1917년도 자료인 경성부관내지적목록에서 확인이 되고요. 현 주소는 종로구 서린동 111번지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는 은행과 병원 등이 들어서 있는 부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예. 이쪽에 대해서도 역시 과연 이 해당되는 것들이 표석 설치로 인해서 과연 시민들에게 더 크게 알리고 이런 내용으로서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먼저 나와야 할 것 같고 기존에 적치됐던 표석들에 해당되는 흡사한 표석과 과연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내용에 심도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같이 얘기가 돼서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저는 근현대 쪽은 잘 모르는데 미리 보고 오면서 어쨌든 같이 활동한 분들이나 1910년까지의 활동 이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 000 위원장

서북학회 이런 것들에 대한 표석들은 설치되어 있잖아요.

○ 000 위원

예.

○ 000 위원장

오상규 선생 기념사업회가 언제쯤 만들어서 어느 활동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 000 위원

여기 인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기존에 설치된 분도 많이 있는데 대개 일반시민들이 들어서 알만한 정도의 인물 정도가 되는 것이 합당하거나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05/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아니면 최소한 교과서에서도 언급되는 인물 정도 되면 설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지만 최근에는 인물에 관한 신청이 오게 되면 어쨌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기각하는 식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어쨌거나 이분들은 개인의 인물을 현창하는 식의 의미를 가지고 대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거나 저도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정도의 활동을,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그 정도의 이해는 없는데요. 여기 참석을 안 하셨지만 독립운동사 등 근대사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인물 평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재점검한 다음에 재논의를 하거나 보류 정도로 처리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예. 지금 000 선생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인물 관련해서 오는 것은 나름 심사숙고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근래 어떻게 보면 각 기념사업회, 개인 집안, 종중들 이런 쪽에서 인물들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인물의 비중이 말 그대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어느 정도나 인지 되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런 분들의 흔적을, 그 활동했던 터를 알려줌으로써 그 의미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하고. 아니면 일부러 찾아봐야만 하는 인물들인데 그것을 표적으로 설치하면, 그러면 그 당대라든가 그 전후시기에 있어서 그분 못지않게 활동했던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같이 올라오지 않고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치 안 하고 신청했다고 해서 하고 하는 것들도 어떤 형평성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000 선생님이 얘기한 것 그대로 그 말을 참고해서 좀 더 현대사 관계하시는 분들과 회의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인물의 활동상이라든가 학회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서로 검토해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들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 000 위원

이분 보니까 개략적으로 기본 활동의 핵심은 서북학회와 관련된 게 제일 핵심적인 것 같은데 어차피 서북학회의 표적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서 충족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 000 위원장

이 학회와 서우학회와 통합해서 서북학회를 창설했으니까 그 맥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서북학회 표석이 인사동 끝에 있죠?

○ 000 위원

예.

○ 000 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설치를 요구한 곳이...

○ 000 팀장

현재 위치는 공안과 정도에 해당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인물들이 잠깐 거주해서 거기에서 회의 몇 번 하고 시작했다가 옮기고 옮겨서 거기에서 학회 발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진 것이 있다면 서북학회 한 것으로 해서 찾아보다 보면 서북학회라든가 한북흥학회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물로 오상규 선생이 나올 테고. 그런 과정인데 한 인물의 활동지역을 여러 군데에 표석을 설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 이 시대가 나름대로 애국계몽활동이라든가 한참 구국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의 문화운동 차원에서 전개해온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추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검토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한 번 더 본다는 거죠?

○ 000 위원장

예. 해당되는 사항을 좀 더 봐서 기존에 있었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05/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전공 쪽 분이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전공자들의 검토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시민들 중에 10%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을 하는 게 이상하다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사람 정도가 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예. 오상규 선생 집터라고 해서 제목도 그렇게 나온 거니까 가벼운 약력을 보더라도 그냥 일반 대한제국까지 관직생활만 하는 것이어서 마지막 국가 위기상황에서 학회를 창립하는 활동에 기여했다는 정도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비중 문제가 같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정도 관직에 있는 분들은 수백 명일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심의 건,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터 표석 신설입니다.

○ 000 주무관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는 1938년에 설립이 되어서 1991년까지 존속했던 학교인데요. 이름이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에서 서울여자의과대학, 수도의과대학 그리고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있습니다.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의 의의라고 한다면 일제식민지 하에서 관이나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의학학교들이 많이 설치되었는데 이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는 김종익이라는 개인의 자금이 원천으로, 즉 민족자금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민족에 의한 사립의학교육 기관의 시초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어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여의사도 많이 배출이 되었다고 하고요. 위치는 그 당시에 나왔던 관보나 신문기록 등을 통해서 봤을 때 서울시 경성부 명륜정 이정목 4번지라고 나오는데요. 당시에 명륜정이 있던 고등상업학교 자리로 파악이 되고요.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 땅은 참 어떻게 표시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있다가 하지만 수도의대 했다가 우석의대 했다가 고대의대가 통합해서 갔는데 고대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05/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자체는 지금 안암동 뒤에 병원을 옮겨갔고 그 자리는 국가공무원이라고 그럴까 공무원 직원 아파트로 해서 만들었다가 지금 아파트로 들어선 상태이고 그것이 상당한 나름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중앙권력부서 가까운 데로 가는 공무원들 해서 그쪽에 해당되는 도로를 낸다고 약간 문제가 있었고 제가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저도 지도에 아까 보니까 동성고등학교가 아마 거기에 있다가 현재 부지로 옮겨간 것처럼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학대학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죠? 국학대학이라고 정인보 선생이 해방직후에 만들었다가 3년 만에 폐쇄된 학교, 그것이 우석대학으로 통합됐든가 해서 하여간 나중에 국학대학으로 해방직후에 만들었던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석병원과 통합이 됐나 아니면 그냥 운영됐는지 모르겠지만... 합병인가 해서 학생들은 갈라지고 나가고 그 당시에는 워낙 변화가 많았던 시절이라.

○ 000 위원

고려대학교로 변화된 그 과정들은 잘 알겠는데요. 저는 여성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여성과 관련한 자료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주면 알리고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인 전공과 관련한 것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실제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민족에 의한 사립 의학 이런 것도 강조가 되어 있네요.

○ 000 팀장

000 선생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4년 10월 문화재위원회 때 경성 의학전문학교 심사를 요청해서 그때 심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경성의학 전문학교요. '여자'자만 빼면. 그때도 신청했는데 이것보다 더 먼저 1910년대...

○ 000 위원

경성의전은 어쨌건 일본인... 총독부에 있는 거니까요.

○ 000 위원장

경복궁 앞에 있던 것 아니에요? 옛날 서울병원 있던 경성여자의전인가,



○ 000 위원

경성의전은 혜화동 밑에 그 자리인데요. 대학로 올라가기 전에 혜화동내 거리인가 있잖아요. 조금 더 가면 서울대병원 나오고 하는 곳.

○ 000 위원장

아니, 여기는 바로 혜화동로터리 바로 옆에.

○ 000 위원

이것은 경성여자의전이고요.

○ 000 팀장

당시에 위원님들이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관립전문학교가 많은데 그것마다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어서.

○ 000 위원

이것은 관립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경성의전도 생각을 같이하는데 그 레벨과 같이 놓고, 왜냐면 어쨌건 간에 일반적으로 경성의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개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경성의전은 관립이니까 이걸 총독부에서 세운 거라서 이것은 지금 상태로는 세우기 어렵고 또 이것은 세울 이유도 없는 게 결국은 이것은 서울대 라인으로 다 합류됐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것은 구태여 신청이라든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성여의전 같은 경우는 김종익이라는 분이 어쨌건 사재출연을 해서 기존에 여기에 여자의학강습소 인가 하나가 있었어요. 있다가 이것으로 정식으로 발주하는 건데 이게 역사적인 의미가 확실히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면 이것도 표석으로 설치할 가치는 있거든요, 일제강점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옛날에 뭐냐면 여성과 관련해서는, 보구여관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라는 측면에서 하나 세워진 거고 시기도 물론 대한제국 시기에 걸쳐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어떤 시기든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가 진짜 여성 의사를 배출하는 곳으로서 최초가 확실히 맞는지 또는 총독부하고 무관하게 설립된 것이 맞는지 정도의 그런 역사적인 가치나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것까지는 어쨌거나 표석 설치를 해도 나름대로 역사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죠. 일제강점기라서 일단 신중해야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것도 일제강점기가



거의 끝날 무렵이거든요. 어쨌건 그런 부분만 확인이 되면, 여성 관련된 표석 그 개념으로 세운 것은 보구여관 이외의 정도라든지 몇 몇 개 많지는 않은 상태니까 그 설치 정도의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리고 이게 일제 때 설립된 것으로 해서 표석을 세우는 게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 문제도 봐야 할 것 같고. 왜냐면 학교 이름이 이렇게 수도의대 같은 것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수도의대 정도는 기억 할 거예요. 우석대학으로 바뀐 것도 한참 뒤인데.

○ 000 팀장

그래서 당시 위원님들의 결론은 전문학교를 일괄적으로 심사해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이후로 사실 전문학교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온 건은 없었어요.

○ 000 위원

그리고 원래 이 자리가 경성고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000 위원장

동성고등학교의 전 이름이 고상이라 그렇습니다.

○ 000 위원

아니예요.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다른 게 뭐냐면 경성고상은 일본인 쪽에서 설립한 상업학교 개념인데요. 이게 원래 1923년 정도인가 이쪽 명륜동에 터를 잡거든요. 그래서 이때 쪽 오다가 뭐냐면, 김종익이라는 분이 뭐냐면 하여튼 땅 같은 것을 많이 갖고 있고 부자예요. 부자 개념인데 원래 갖고 있는 것은 종암동. 종암동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 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병원을 설치하면 서울시내에서 좀 떨어지는 자리라서 자리가 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성고상하고 자리를 맞바꿔 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성고상이 해방 이후에 서울상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상대가 되고 지금 거기 부속고등학교 있는 자리, 사대 부고가 있죠. 하여튼 그런 맥락으로 교대 개설해서 됐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서로 자리를 맞바꿔 친 게 시내 쪽에 병원을 만들려는 그래서 서로, 그쪽은



땅을 교환하면 땅이 월등히 큰 땅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쪽 경성고상이 나가서 서울상대로 된 거고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1938년도 5월인 것을 보니까 여기서 80주년 그 개념으로 신청하신 거겠네요.

○ 000 팀장

그런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일제 때고 한국인이 했다 그러면 다 '민족에 의한'

○ 000 위원

꼭 민족이 한 것이 아니라도 필요한 것은 또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제시기에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지만요. 그런데 어쨌든 여성과 관련한 것은 워낙 소수니까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는 찬성합니다.

○ 000 위원장

아까 얘기하신 것은 전체 의견들하고 통합해서 같이 보자는 식으로...

○ 000 팀장

전문학교가 건건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것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심사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당시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그 뒤로 신청이 별로 없어서요.

○ 000 위원장

그럼 표석 신설하는 방향으로 하고 종합검토를 한 번 더 검토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 000 팀장

저희가 000 교수님이 지금 사료조사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100건 안에 사실상 신설되는 것에 대한 것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05/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오상규 선생 집터랑 이거랑 해서 사료를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000 역사문화재과장

이것도 보완이 필요한가요?

○ 000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사료 문제도 있고 의미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오상규 집터는 위치는 거의 정확한 건데요. 더 이상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큰 원칙이 정해져야 할 것 같아요. 전문학교 문제도 원칙이고 아까 중구청 그 문제도 원칙이죠. 서울시가 하는 것을 구청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 원칙이 정해지면 다음부터 자문할 필요도 없죠.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 000 위원장

현재 옛날 보안사 터 거기에도 의견 뭐가 있었잖아요.

○ 000 위원

그것은 경성의전 부속, 병원 자리예요. 병원인데 그것은 건물 자체가 남아 있어서 건물 자체가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로써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설명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 000 위원장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좀 염려스럽다고 할까, 아직도 서울대학병원 하고 연세대병원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우리나라 근대의학기관의 시작이 어디냐 해서 서로 설왕설래가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도 아마 그런 것들도 같이 봐야 할 부분의 내용이 있을까 혹시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시초라고 하는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의미 자체가 과연 우리 역사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자체로서 시작했다는 의미로 봐야 하는 것인가. 지금 000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다 볼 때, 지금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서 한 단계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표석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방향성도 있지만



그 자체가 어느 선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나. 그 당시의 표석들의 비중이라든가 형평성 문제. 그리고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시설물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막 늘어나는 것만 있는데 면적은 제한되어 있고,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제한되어 있고. 그런 것들도 같이 큰 차원에서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000 주무관

일단 신설은 하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한다는...

○ 000 위원장

예.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 그런 식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000 역사문화재과장

어차피 자문은 다시 심의를 또 올리잖아요. 자문 심의하고 내용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 000 위원장

그럼 지금 오상규 선생님의 표석 설치하는 설치 자체까지 검토하도록 하고 의전은 설치하는 하는 방향으로 하되, 내용은 더 검토하도록 하고.

○ 000 팀장

보류하고 가결이네요.

○ 000 위원장

예. 내용 문제는 하나의 조건을 달아놓고요.

세 번째 대한적십자병원 터 표석 신설 심의 건, 설명 들어보시죠.

○ 000 주무관

이것도 일제강점기와 연결되는 표석인데요. 지금 위치는 관보 등을 통해서 봤을 때는 북서 대동이라고 나와 있고요. 현재 창성동 117번지이며 지금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적십자병원 터의 의미는 1905년에 대한제국정부와 고종이 일제 침탈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중립국을



천명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 적십자사에 가입을 하였고요. 또 여기에 연결해서 대한적십자병원을 설립 하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적십자병원을 설립하고 나서 약 62,000여명의 환자가 내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05년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대한 제국의 외교권이 박탈이 되면서 일제에 의해서 적십자사 가입이 무효화되었고 1907년에는 대한의원으로 편입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병원입니다. 관련 기록은 앞선 신설 건보다는 많이 남아 있어서요. 문헌을 봤을 때 고종실록이라든지 승정원일기 등에 ‘적십자병원 설립을 명한다.’ 등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지금 법맥으로는 대한적십자병원과 통합니까? 이 적십자병원은 완전히 대한의원으로 편입되었다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 다시 만들어진 것인지.

○ 000 위원

지금 있는 것은 일제 때 만들어진 거죠. 1920몇 년도인가 만들어졌는데.

○ 000 위원

이것과는 안 통할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서울대학병원으로 흡수된 걸로...

○ 000 위원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신청한 거죠.

○ 000 위원

법맥상으로는 경성제대의대 그쪽 라인으로 흡수됐다고 볼 수 있는데.

○ 000 위원장

이름이 똑같아서요.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그것과 별개로 새로 생긴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여기처럼 적십자사가 근대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만들어지는 개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황실 중심으로 대개 만들어지거든요. 1907년도 언저리에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대한적십자사를 포기해버리고 일본 적십자사의 한국본부 이런 식으로 거기에 거의 휩쓸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적십자사는 사라지거든요. 이게 흡수되는 그 언저리쯤, 대한의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순간에. 그런데 어쨌거나 적십자사 자체의 연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적십자사와 관련된 흔적들은 따로 구체적으로 남겨놓지는 않고 그 맥이 어쨌거나 합쳐지는 이후에 남산에 올라가다 보면 있는데 그것도 일제강점기 때의 자리를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별도의 표기도 안 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건 대한제국 시절에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것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역사적인 의미는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표석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도 무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대개 보면 서울대 쪽에서 몇 년 전에 의학교를 신청해서 그것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다 보면 일본인 의사들이 원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우려되는 바는 있으나 분명히 이것은 대한제국에서 어쨌건 주체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설령 일본인이 관여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적십자병원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잠깐 몇 년 동안 했을 뿐이기는 하지만 그자체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 시설 뒤에 이어진 다른 시설들은 많지 않나요?

○ 000 위원

예. 그 자리가 여기처럼 근대식으로 원래 무슨 자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본군들이 말 같은 것을 전쟁 때 거기에서 키우기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일제 때 초기에는 여기 뒤에 사진도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요. 건물사진은 똑같은데요. 여기 경찰관 연습소인가 그런 것도 하다가 광화문으로 나오고 체신이원양성소라고 일제 때 우편배달부를 양성하는 곳으로 한참 사용하고 있다가 1930년대 언저리인가 원효로 안쪽에 보면 체신공무원 교육원 자리 있죠. 그게 원래 여기 있던 게 옮겨가서 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 자리에 1960년대 이후로는 거기가 국민대학교 자리거든요. 국민대학교가
섰다가 국민대학교가 그리로 옮겨간 이후에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창성동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그 건물이거든요. 하여튼 그 자리도
변천사가 굉장히 심해요.

○ 000 위원장

그 일대가 하여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관청이라고
그렇까. 이런 시설들이 수없이 많이 바뀐 형태의 것들이 많다 보니까 표석
으로서 하나만 붙여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땅의 역사가.

○ 000 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금방 말씀을 하신 것을 참조하면 같은 공간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자리에 변천사를 일괄적으로 훑어서,
이게 제 생각에는 적십자병원 표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보완조사를
더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2~3개를 같이 쓰는 복수형 표석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것을 별로 활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디자인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시험적으로 딱 하나 만든 것이고요. 그 이후에
같은 자리에, 지금 같으면 표석을 같은 자리에 2~3개가 있으면 3개까지라도
별개로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판에 만들어보자고 해서 시험적으로
했던 게 그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 공간의 의미를 전체 연혁을 쭉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부터 뭐가 있었던 자리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표석
정도를 세울 의미가 있으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 000 위원장

한 표석에 그 비슷한 내용을 같이 넣을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고.

○ 000 위원

2~3개 이렇게 해서 칸만 구분해 주면 되거든요.

○ 000 위원장

다른 의견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지금 다 의견을 나눈 것처럼
세 번째 대한적십자병원 터 표석 신설은 신설 방향으로 가되, 이것은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죠.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05/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그런데 의료사는 역사 속에서 상당히 열심히들...

○ 000 위원

서울에 정말 뭐가 많기는 많네요.

○ 000 역사문화재과장

또 서울은 요새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 쪽에서는 자른 것도 있고,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근현대 인물까지도, 완전히 70~80년대 인물까지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 000 위원장

하여간 전에 계속 해왔던 얘기지만 인물 관련된 것들은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하고 인명사전 같은 것 할 때도 보면 생존인물이라든가 사후 변경이라든가 하면 아예 해당되지 않는 인물로 제쳐놓고 시작하기도 하잖아요.

○ 000 위원

그런데 병원 이름이 승정원일기에는 대한국적십자병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자가 더 들어가구요. 그리고 병원사진 30페이지에 보면 현판에 '대한국적십자병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 밑에 설명도 한국적십자병원이라고 해서 '대한국적십자병원'이 맞는지.

○ 000 위원장

고종실록에 보면 대한적십자병원이고 승정원일기에는 대한국적십자병원이고.

○ 000 위원

사진의 현판에 걸려 있는 대한민국.

○ 000 위원장

칙령이나 규칙 같은 데 보면 그냥 대한적십자사.

○ 000 위원

사는 그렇고, 지금은 병원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 000 위원장

관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 000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치료월보 위의 것도 지금 제목은 ‘대한적십자병원’이라고 서울대 팀이 썼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본문 첫 줄에 ‘대한국적십자병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는 썼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조금 미묘한 게 이때가 우리가 여권도 없을 때라서 통감부가 거의 관리할 때인데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 000 역사문화재과장

간판에도 대한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판 뜰 때 가장 공식적인 명칭이 아닐까 싶은데요.

○ 000 위원장

실록하고 승정원일기하고 다르네요. 현판에는 그렇고 안내문에는 그냥 ‘한국’이라고 되어 있고. 그 통일하는 문제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 얘기를 한 번 해볼까요? 대한국적십자병원이나 대한적십자병원이나. 서울대학교 의학역사문화원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그냥 ‘대한적십자병원’으로 신청한 모양인데 그분들도 많이 검토를 했을 텐데요. 그런데 건물에 현판까지 붙었으니 이것은 뭐…

○ 000 팀장

그러면 보완조사를 할 때 알아보고 다시 가결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 000 위원

아까 경성여자 그 학교는 000 선생님 말처럼 여자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여자’를 빼고 첫 번째라고 한 거죠. 그게 문제가 된 거죠. 000 선생님은 여자교육기관이라고 했는데 신청자들은 ‘민족에 의한 사립의학교육의 첫 번째다.’이랬어요, 여성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훨씬 확대해서 한 거죠.

○ 000 위원



그래도 어쨌든 자료 자체는 여자라고 하는 게 강조되어 있던데요.

○ 000 위원

신청자는 그래도 민족에 의한 사립교육기관의 첫 번째다. 그러면 훨씬 확대된 개념이죠. 표석에 쓸 때는 달라지죠.

○ 000 위원

서울대 쪽에 이야기를 하실 때 경성여전이 진짜 여성 교육기관으로서 제일 처음인지 아니면 그 전에 사례가 있는지 여쭙보시죠.

○ 000 위원

어디예요?

○ 000 위원

서울대 쪽에서도 그것을 하니까 그쪽에 그런 식으로 참고삼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개념으로서는 이게 진짜 최초의 여성의료인 양성 이런 식의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전에도 여자 의사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것은 해외에서 받고 온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 계통에서 양성 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최초라고 생각하는데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는 거죠. 약간 별건이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은 어떻게...

○ 000 위원

그리고 의학사에도 나오던데요. 최초의 여의사는 누구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을 시키면,

○ 000 역사문화재과장

남녀공학이었을 것 아니에요. 옛날에 의학부나 세브란스병원은 남녀공학 이니까 거기서 여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여성만 할 수 있는 여성 전문학교니까 여의사가 어디서 최초로 나왔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 같은데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들이 여성교육기관이라고 제목에 넣었으면 훨씬 간단했는데.



○ 000 위원

저도 한 번 좀 알아봐야겠어요. 이쪽 연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가서 얘기를 해봐야 하겠네요.

○ 000 위원장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

